

한국천주교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루카 3,4)

그림 | 홍 세레나

입당송 이사 30,19,30 참조

보라, 시온 백성아. 주님이 민족들을 구원하러 오신다. 주님의 우렁찬 목소리를 듣고, 너희 마음은 기쁨에 넘치리라.

제1독서 바룩 5,1-9

화답송 시편 126(125),1-2ㄴ-2ㄷ-3,4-5,6(◎ 3 참조)

-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겟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2독서 필리 1,4-6,8-11

복음환호송 루카 3,4,6

-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복음 루카 3,1-6

영성체송 바룩 5,5; 4,36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인권주일 특집

한국천주교회는 대림 제2주일을 ‘인권주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신비로 더욱 분명해진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소중함에 대해 성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여기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 4면에서 만나보세요.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신부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달빛이 내려와 앉는 고즈넉한 밤에 가로등 아래를 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로등 빛 때문에 생긴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걷다 보면, 어느새 가야 할 방향이 아닌 엉뚱한 곳을 향해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로등 빛과 그림자의 모습 안에서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곧 가로등 빛을 ‘하느님’으로, 그림자를 우리가 지은 ‘죄’로 가정해 봅시다. 자신의 그림자, 즉 자신의 죄에 시선이 묶이면 묶일수록 가로등 빛, 즉 하느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뿐 아니라 점점 하느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물론 가로등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그림자는 더욱 진해집니다. 하느님 안에 깊이 머물면 머물수록 우리의 죄가 더 구체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림자를 없애기 위해서는 가로등 빛 아래에 하나가 되어 머물러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없애는 방법도 하느님 안에 일치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느님만이 우리 내면의 그림자, 우리 죄를 당신의 자비와 사랑으로 녹여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하느님 자비의 손길에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즈카르야의 아들 요한은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죄를 용서받으려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온전히 하느님의 뜻에 일치시켜야 한다고 외칩니다. 이 목소리에 이끌려 사람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습, 즉 자기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하느님께로 돌릴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의 세례, 죄의 용서는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느님만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사도 베드로가 한 세 번의 배반과 세 번의 사랑 고백을 설명하면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에 대해 일깨워 줍니다. “베드로여, 실망하지 마십시오. 한번, 두 번, 세 번까지 대답하십시오. 당신의 경솔한 자신감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세 번이나 땅에 떨어지고 말았으니 당신은 사랑의 고백도 세 번 해야 합니다. 세 번 묶은 것은 역시 세 번 풀려져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묶은 것을 사랑으로 푸십시오.”(‘성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 대축일’의 ‘성무일도’ ‘독서기도’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배반했던 베드로를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에게서 당신에 대한 사랑 고백을 이끌어 내시고, 당신의 양 떼를 돌보라는 사명까지 주십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입니까? 그 사랑의 손길을, 그 자비의 마음을 내 삶 안에서 찾아봅시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전합시다. 세례자 요한의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루카 3,4.6)는 외침은 우리를 위한 외침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외침이기도 합니다.

대림시기가 되면 우리 모두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자비로운 사랑의 하느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습니다. 바로 고백성사의 기회입니다. 참 빛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죄스러움의 그림자는 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를 보지 말고 빛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주님 사랑의 환한 빛이 우리를 감싸주고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겸손하게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라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두 눈을 감으면...



우리는 함께 행복하고, 함께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종으신 하느님을 홀로 만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없이 홀로 간다면,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프랑스 시인 샤를페기

예수님의 두 팔

신지철 바오로 신부
(재)한국교회사연구소 부소장

몇 년 전 로마에 있을 때 유독 저의 발길을 향하게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중앙역인 테르미니(Termini) 근처에 자리하고 있는 ‘순교자들과 천사들의 성모 대성당’이 바로 그곳인데요. 이 성당은 원래 고대 로마 시대에 3000여 명이나 수용할 수 있던 목욕탕이었습니다. 그곳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가 개조해 만든 대성당입니다. 이 성당의 특징은 옛 예술·전례 작품뿐 아니라, 현대 작가들의 것들도 들여놓음으로써 고대와 현대가 만나고 어우러지는 새로운 전례공간으로 바꾸었다는 점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성당 왼쪽 문에 새겨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반대쪽에는 ‘성모영보’를 주제로 한 작품도 함께 있구요. 두 작품 모두 굉장히 단순하게 마치 문 속에 녹아 있는 듯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이것은 폴란드 출신의 이고르 미토라이(Igor Mitoraj)라는 작가의 2006년 작품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폴로를 닮은 젊은 남자의 모습으로 표현했어요. 그 때문인지 현대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난해하거나 이질감 없이 편안하고 친근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모영보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들 가운데 하나이죠. 하느님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시어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을 안겨주시는 순간입니다. 그렇기에 전통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밝고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모습으로 그려냈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히려 커다란 십자가를 가슴에 새긴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십자가가 예수님의 몸을 나누어 놓은 듯한 모습입니다. 사실 이 작가는 자신의 거의 모든 작품을 절단된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그를 통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이지요. 이러한 새로운 표현을 통해 작가는 어떤 메시지를 강조하고자 하는 걸까요?



이고르 미토라이(Igor Mitoraj), 2006년,
Basilica Santa Maria degli Angeli e Martiri

우리는 성모님과 같이 하느님에 대한 순명의 마음으로 신앙을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례 때 신앙고백과 죄를 끊어버리겠다는 다짐을 하지요. 하지만 지상에서의 우리 삶은 불순명과 불신으로 물들고 점점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곤 합니다. 우리는 거리와 성당 안에서 십자가와 예수님을 보지만 사실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마음은 나를 차갑고 냉소적이며 이기적으로 만들곤 하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오고자 하십니다. 그분 가슴에는 고통스럽지만 우리에게 대한 사랑의 마음이 담긴 십자가가 너무나도 선명하고 커다랗게 새겨져 있습니다. 너무나 깊고 커다랗게 새겨져 몸을 조각내 버린 십자가는 우리에게 대한 예수님의 애절하고 깊은 사랑을 더욱 강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분은 슬프고 고통스럽고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완벽하고 당당한 강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그분의 두 팔도 잘라놓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나자로를 죽음으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두 팔이 날카롭게 잘려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두 팔이 되어달라고 이야기 하십니다. 아픈이들에게 위로를, 가난한 이들을 위해 자선을, 지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기적이 되어주는 당신의 두 팔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상의 각박함과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두 팔이 되어 사랑의 마음을 이웃들에게 전해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겨울나기 Love in Action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 시기입니다. 교회에서는 차별과 불이익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먼저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이 되어주길 권고합니다. 주변에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연말이나 명절에 한시적으로 하는 지원, 단기 봉사보다는 늘 그들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우리의 형제, 자매로 사랑을 나누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떤 방법으로 봉사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셨다면 인권 주일을 맞아 기관 및 시설을 소개합니다. 청년 여러분, 교회의 전례력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봉사로 한 해를 준비해 보세요.



리딩자리

(장애·영유아 보육시설)

장애로 인해 가정 내 보호 포기, 입양이 보류된
0세~만 6세의 장애 영유아가
가정공동체 형식으로 거주하는 시설

봉사방법

- 아이들과 관련된 일이므로 6개월 이상 정기적인 자원봉사가 가능자
- 담당자와 면담 후,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요일 및 시간대와 봉사 지원자가 정기적으로 참여 가능한 날짜를 조율한 뒤 최종 배치

봉사분야

- 개인, 전문 자원봉사 - 방 및 외부청소, 장난감 소독, 설거지, 식사 보조, 놀이 활동 지원, 이·미용 봉사, 유아 대상 집단 프로그램 봉사(체육, 음악 등)
- 문의 02-987-6009

애덕의 집

(지적 장애인 거주 시설)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에서 운영하며
지적 장애인들에게 재활서비스 제공, 전반적인
능력향상과 사회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기관

봉사방법

-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봉사활동 신청 후 날짜를 조율한 뒤 최종 배치

봉사분야

- 개인, 단체 봉사
- 노력 봉사 - 원 내외 주변 청소 등
- 시설 관리 - 산책로 정비, 원예 작업 등
- 행사 지원 - 견학, 나들이, 체험활동 등
- 재능 기부 - 이미용, 학습지도, 여가 지원프로그램
- 연계 기관 이용 - We can (www.wecan.or.kr),
소울 베이커리 (www.soulbakery.kr)
- 문의 031-962-4450~1



라파엘의 집

(장애인 거주 시설)

중증 장애아동들이(시각, 중증 장애)
낮에 생활하는 곳으로 다양한 사회, 정서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는 4~20살까지
15명의 아이가 거주하고 있는 기관

봉사방법

- 연간 계획표가 설정되어있으므로 유선으로 문의하여 봉사 가능 날짜를 조율한 뒤 최종 배치

봉사분야

- 개인, 10명 미만의 단체 봉사 - 식사 도우미(1일 4회), 산책·재활 치료 보조, 청결 위생(세면·목욕)
- 후원 및 물품 지원(아이들 생활에 필요한 물품 및 도구)
- 문의 02-739-7020, 7023

토마스의 집

(무료 급식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무료급식소로 임의의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지 않고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에 많이 참여하는 기관

봉사방법

- 유선 문의 및 토마스의 집 카페(cafe.daum.net/thomas77128)에서 봉사 신청

- 월 1회, 6시간 이상 꾸준히 봉사할 수 있는 개인 및 단체

봉사분야

- 급식소 음식 준비, 배식 및 설거지
- 후원 및 물품 지원
- 문의 02-2672-1004

[편집부 이진영 아눈시앗다, 최유진 스텔라]

2018 젊은이를 위한 고해성사

일시 12월 14일(금) 20시 / 참회예절 19시 30분
장소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
대상 세례를 받은 젊은이라면 누구나
성사집전 교구장님, 주교님, 사제단
추최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관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727-2095)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직원 채용

채용 간사(청년 사목 및 교재 연구) 대상 대졸 이상(교회 내 청년 활동 경험 / 영어 가능자 우대)
문의 762-5071~2
전형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최종 합격자는 추후 개별 통보
12월 31일(월)까지 이메일(mail@2030.or.kr) 접수
서류 응시원서(굿뉴스 가톨릭 단체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사본, 졸업증명서, 본당 신부 추천서(제출 서류 반환 안 됨)